

사회복지 영상기록과 활용 2016.0404

복지영상 visualwelfare.net

feelca@hanmail.net

010-6287-6647 이 성 중

1. 카메라를 든 사회복지사

관계를 담는 카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선/격자를 이용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 촬영 • 친근한 카메라맨이 되어보세요 • 시선을 표현하는 카메라의 기울기 (눈높이를 맞춰 보기, 우러러 보기, 내려다 보기, 새롭게 보기) • 사진을 찍히는 마음 • 관계를 표현하는 거리와 사진 속 인물 사이즈 (객관적인 Full shot 부터 주관적인 Close Up 에 담긴 거리감) • 강점관점 촬영 - 의도를 알려주는 렌즈의 방향
설명, 공감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를 잘 기록하는 방법 (전체적인-설명하는-공감하는) • 보이는 것에서 공감하는 기록으로 (See-Look-Find-Feel) •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버튼 • 신뢰를 회복하는 카메라 워킹 (긍정적인 시선-친근한 촬영-같이 보며 즐기기-약속 지키기) • 프로그램을 (현장감 있게) 기록하기 (열장의 사진으로 업무를 기록한다면, 자동차 운전)

2. 영상으로 사회사업하기

사회복지와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관의 역할을 하는 복지기관 • 작가,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 • 사람과 지역의 성장, 가치를 품은 시간의 저장소 •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 제작소 • 사회복지 교육, 전문화 도구
영상언어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에 감동이 없는 이유 - 시청자를 고려한 기록 원리 • 영상의 구성요소, 이야기의 구성요소 • 영상으로 된 단어와 문장 (컷과 씬) •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움직임 (줌zoom, 틸트Tilt, 패닝Panning...) •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록 •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 같은 영상 인터뷰 • 영상단어 촬영 실습- 가깝게, 멀게, 움직임, 인터뷰 • 신속한 편집, 즐거운 상영

3. 사회복지 콘텐츠로 소통하기

<p>사회복지의 씬 #Scene</p> <p>장면으로 이야기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의 씬 Scene - 주제별, 분야별, 프로그램 • 레고 블록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 주제, 핵심을 보여주는 영상 클립과 이야기 • 멀티미디어 콘텐츠 (글 + 사진 + 동영상) • 진정성을 높여주는 즐거운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비의 TV, 신속한 상영회, 미디어로 돌려주기, 공유하기 • 허락, 배려, 초상권, 저작권
<p>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를 담는 뷰파인더 정리 • 영상으로 사회사업하기 정리 • 질의 / 응답

- 강의자료와 피드백 안내

복지영상 홈페이지 www.visualwelfare.net
 영상을 볼 수 있는 곳 www.youtube.com/visualwelfare.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visualwelfare



관계를 담은 뷰파인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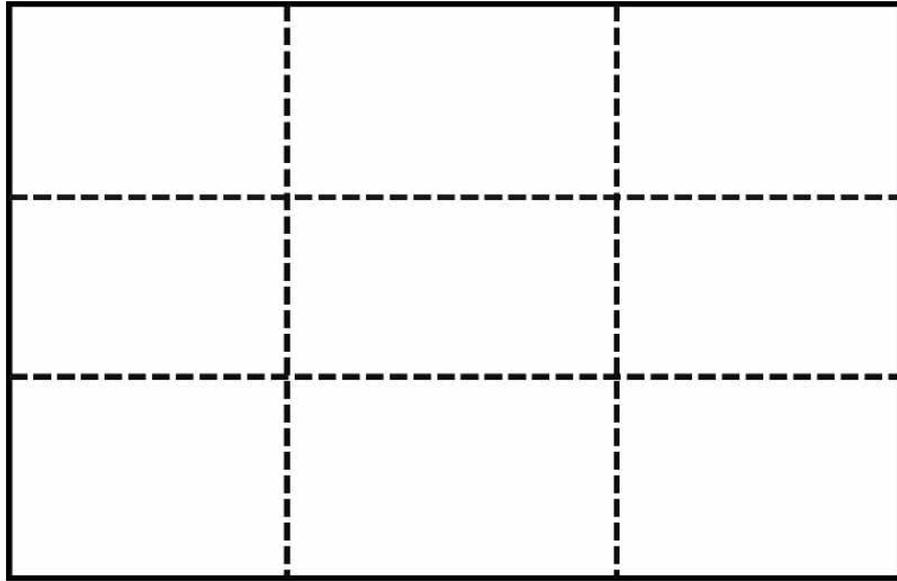
다양한
단어



시선(기울기) 눈높이 맞춤- 올려다 보기- 내려다보기

몸춤
다가가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공감하기

30% Full shot
객관적인
누가,언제,
어디서



40% Middle shot
설명이되는
무엇을,
어떻게

← 격자/
안내선
눈 맞춤
수평수직

30% Close Up
Shot
공감하는
어떻게, 왜

신뢰
긍정적인
렌즈방향
약속
돌려주기
궁금증
해결

관찰 시인의 눈 See → Look → Find → Feel
누구나 보는 관심, 지켜보는 알아야 보이는 공감하는, 역지사지

보이는 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 장면으로 기록 하세요

“분명히 좋아보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은 예쁘지가 않아요. 난 카메라에 소질이 없나 봐요” “내가 가진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사진이 찍히질 않아요.”

사진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소질을 탓하거나, 카메라 성능을 탓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람의 눈을 따라올 수 없는 카메라 렌즈의 한계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진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멋진 자연이나, 상황을 그 위치에서 카메라로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한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만든 사각형의 프레임 만큼만
기록 할 수 있는 것이
카메라입니다.

눈이 보는 것을 카메라로 표현하려 하면 사물이 너무 작게 표현되고, 넓게 보려하면 둥글게 왜곡이 되거나, 멀리 보려하면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예 좁은 영역만 표현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렌즈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대로 기록된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으면 전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풀샷 위주의 사진만 기록이 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이 한 눈에 보이면서도 그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한 쪽 눈을 감은 것 같은 렌즈의 성능으로는 아예 눈이 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석을 예를 들어 카메라의 제한된 시야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보통 운전석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 왼쪽 백미러부터 오른쪽 와이퍼의 끝부분까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카메라로 보면 왼쪽 백미러와 함께 룸미러도 보기 힘듭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가진 카메라로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카메라로 눈이 보는 것을 표현하려면 여러 장의 사진으로 표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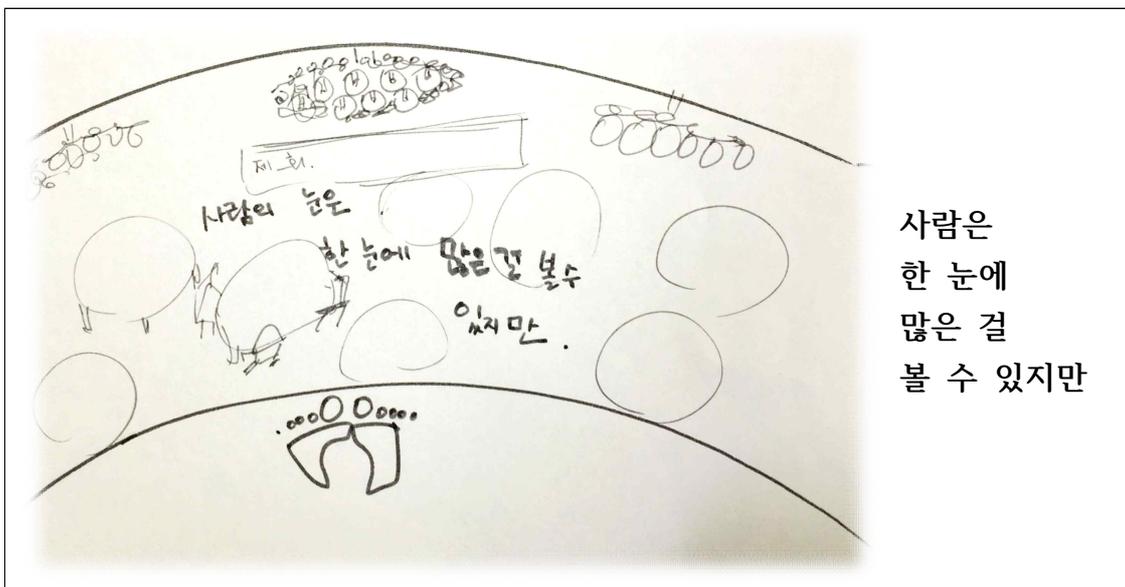
(왼쪽 백미러, 가운데 룸미러, 계기판, 오른쪽 백미러, 전방 시야, 기어변속 하는 손, 가속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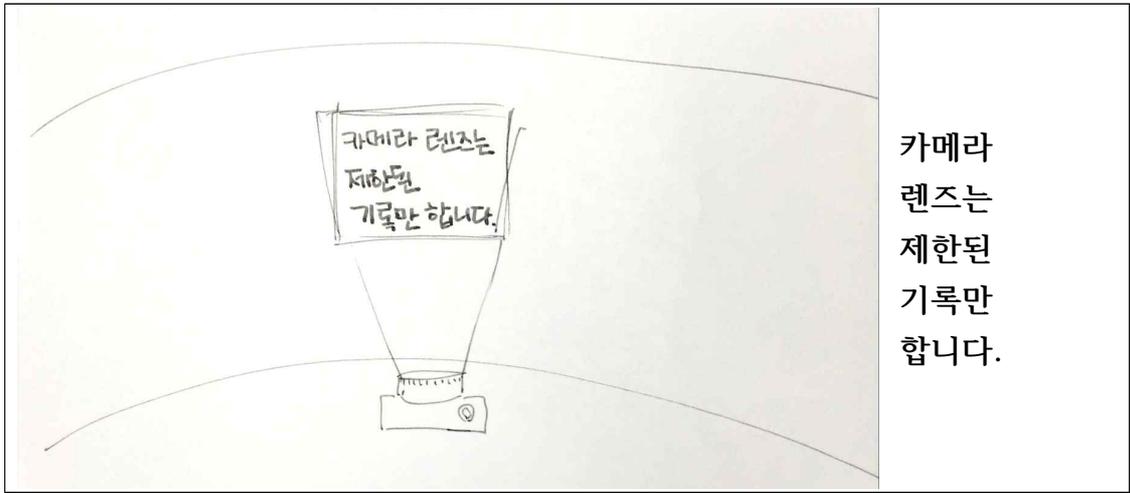


이렇게 여러 장면의 사진과 비디오로 기록을 해야 사람의 눈이 보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한 컷의 비디오로 여러분의 소중한 프로그램과 일상을 기록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사이즈의 장면들로 기록한 다음, 적절한 사진을 골라서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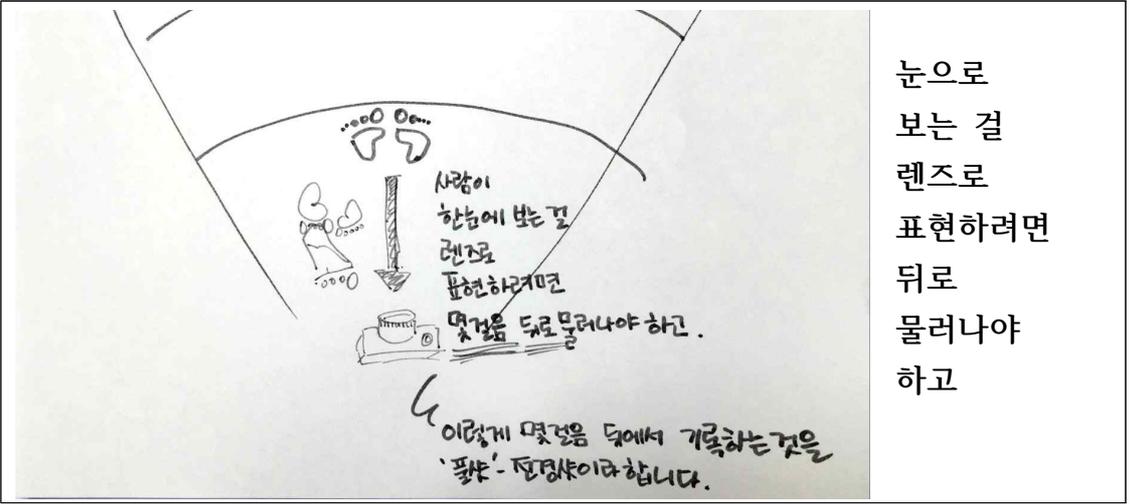
전체적인 것을 알려주는 풀샷 =>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는 미들사이즈의 샷, 클로즈업 샷=> 다시 전체적인 것을 알려주는 풀샷의 순서로 기록을 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사진과 영상을 기록할 때, 오히려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과 새로운 시선을 카메라로 표현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 보다 더 집중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카메라로 기록할 때 렌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습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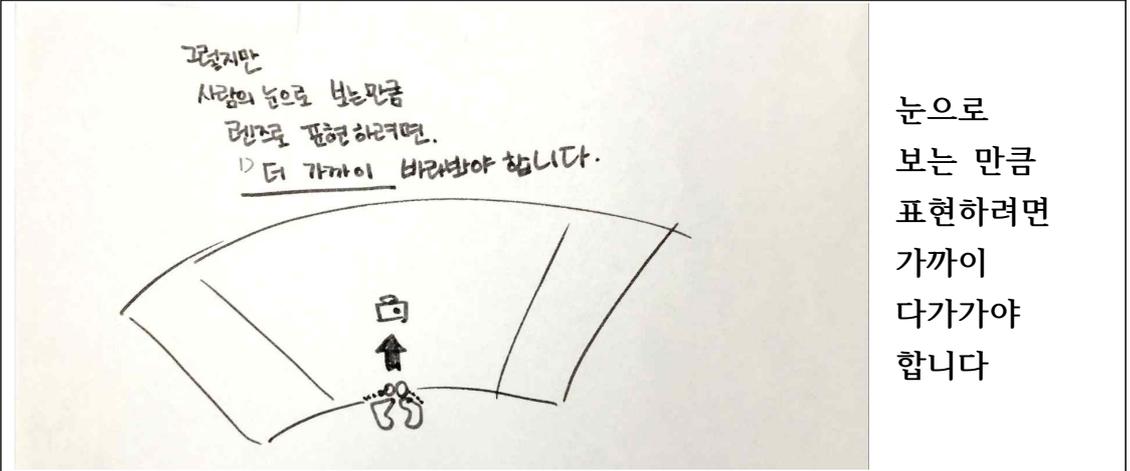




카메라
렌즈는
제한된
기록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걸
렌즈로
표현하려면
뒤로
물러나야
하고



눈으로
보는 만큼
표현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사진을 못 찍는 게 아니라, 눈이 보는 것을 카메라가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렌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의 상황에 변화를 줍니다.

높낮이를 변화시키거나 (봄업, 봄다운-카메라를 들고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남)



가까이 멀리 (몸인, 몸 아웃-몸이 앞으로 다가가거나, 멀어짐)



카메라의 기울기 (로우앵글, 하이앵글, 버즈아이 뷰)를 다르게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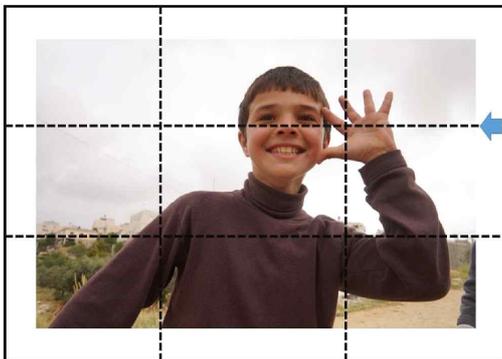
1. 렌즈의 먼지, 손자국을 확인해보세요

‘왜 내가 찍으면 항상 흐릿하게 나오지?’ 궁금하신 분은 렌즈를 확인해 보세요.

항상 손에 들려 있어서 카메라 렌즈에 지문, 먼지, 화장 기름기 같은 것이 묻어 있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옷감의 한 부분으로 렌즈를 살짝 닦아 주세요.



2. 격자/안내선의 기능을 활용하세요



격자/
안내선
눈 맞춤
수평수직

카메라의 격자(안내선) 기능을 표시해서 인물사진을 찍을 때 격자의 윗선에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을 가까이 맞추면 TV속에서 나오는 인물 사진 같이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세로로, 가로로, 가까이, 멀리 다양한 사이즈로 변형해 가면서 나만의 편한 구도를 만들어 보세요.

격자/안내선

눈 맞춤, 수평수직



안드로이드폰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설정- 안내선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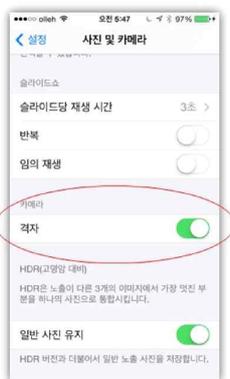
안드로이드 폰은 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제어판(톱니바퀴 모양)에서 안내선 혹은 수직수평안내선의 기능을 켜짐으로 설정합니다

격자/안내선

눈 맞춤, 수평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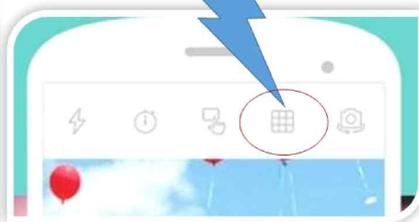
아이폰-
설정-사진 및 카메라-
격자켜기



아이폰은 설정에서 사진 및 카메라의 격자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 중
안내선/격자 기능이 없는 경우 (LG, SKY..)

캔디카메라등 어플을 설치해 격자기능을 켭니다.



수직/수평 안내선, 황금분할 같은 용어로 격자 설정 기능이 있는 어플을 설치해서 활용하세요

되돌려주기 위한 인물사진 촬영



인물사진은 돌려주기 위해서 촬영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1) 머리를 맞대고 같이 보기 - 사진을 찍은 뒤 카메라의 액정에 표시되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맘에 드세요? 이 사진 참 잘 나왔네요, 또 다른 포즈로 찍어볼까요?”

2) 문자로, 카톡으로 바로 전송 - 카카오톡의 경우 사진속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는 방법도 즉시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에 익숙하다면 스마트폰끼리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지요.

3) 인터넷,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놓을게요 - 이메일주소,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준 후 일정 시간 안에 사진을 골라서 공유합니다.

4)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 명함이나, 이메일 주소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핸드폰의 메모장을 이용하면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있어 누구인지 잘 알아보기 힘들면 메모내용과 보낼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5) 혹시 메모리 있으세요? -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 경우엔 사진 파일들을 즉석에서 복사해서 이동저장장치나, 상대방의 컴퓨터에 복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우리 다같이 사진을 볼까요? - 빔프로젝트 같은 상영도구를 이용해서 모두가 볼 수 있





는 곳에서 같이 보면 즐거움이 배로 됩니다.

7)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용기종기 모여서 보기

8) 카메라를 TV에 연결해서 같이 보기 - HDMI 같은 케이블을 잘 챙겨 두었다가 TV앞에서 슬라이드쇼를 해서 보면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최근에 나오는 TV는 USB 메모리에 사진을 옮겨서 TV의 USB 연결 단자에 연결하면 사진 슬라이드, 영상보기가 가능합니다.



9) 사진을 인화해서 주기 -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효과적이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인화해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가장 감동받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돌려주는 방법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회복지사의 '강점관점' 촬영

1. 반갑게 인사하고
2. 칭찬하며 사진을 찍고
(강점을 찾고)
3. 같이 보며 즐기고
(또 칭찬을 하고)
4. 사진을 돌려줍니다
(문자로, 메일로)

- 칭찬의 글과 사진
문자로 보내기

010-6287-6647 이성종



동영상 - 안내선에 눈을 맞춰 봐요

거리감 느껴보기 - 풀샷
Full Shot



거리감 느껴보기 - 풀샷
Full Shot



거리감 느껴보기 - 니샷 Knee Shot



- 사람사이의 거리
- 1미터 이상
- 마음의 거리
- 부담없는
- 객관적 거리
- 여러사람 표현하기

거리감 느껴보기 - 니샷 Knee Shot



거리감 느껴보기 - 웨이스트 샷
Waist Shot, Medium shot



- 사람사이의 거리
- 1미터 이내
- 마음의 거리
- 모르는 사람은 살짝 부담되는
- 객관적, 주관적 거리의 혼합
- 뉴스 아나운서 크기



거리감 느껴보기 - 바스트
Burst Shot

- 사람사이의 거리
- 50센치 이내
- 마음의 거리
- 모르는 사람 불편한
- 주관적 거리
- 주인공, 배경인물의 표현
- 인터뷰



거리감 느껴보기 - 타이트바스트
Tite Burst



- 사람사이의 거리
- 30센치 이내
- 마음의 거리
- 친한, 연인, 가족
- 주관적 거리
- 주인공, 배경인물의 표현
- 감정이 담긴 인터뷰

거리감 느껴보기 - 클로즈업
Close Up Shot



업무를 잘 기록하는 방법

전체적인 사진
30%



설명하는 사진
40%



공감하는 사진
30%



• 전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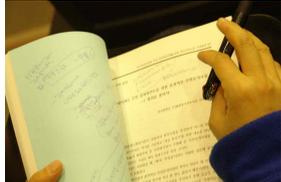
• 설명하는



• 공감하는



열장의 사진(영상)으로 업무를 기록한다면 3:4:3 비율로 사진을 찍자!

	객관적인 기록(3)	설명하는 기록(4)	공감하는 기록(3)
사진 속 피사체 사이즈	Full Shot 	Middle Shot 	Close Up Shot 
카메라와 찍히는 사람과의 거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행사장의 앞, 뒤 	상황을 알 수 있는 보통의 인관관계를 맺는 거리 행사장의 중간 	가까이 다가가는 1미터 이내의 거리 참가자와 밀접한 
	객관적인 기록(3)	설명하는 기록(4)	공감하는 기록(3)
촬영자와 찍히는 사람과의 관계	공식적인 	공식적인/아는사람 	친근한/공감하는 
프로그램 시간대별	시작, 중간, 끝	시작 전, 중간, 쉬는 시간, 끝난 후	중간, 쉬는 시간, 끝난 후, 일상
사진의 용도	보고, 증빙, 보도	과정, 서비스 설명	상상, 공감, 이야기 거리, 사례
사진에서의 눈 높이	성인어른의 눈높이 높은데서 내려다 보기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상대방 입장에서의 바라본 

1. 한 눈에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Full Shot, 단체사진, 기념사진, 전체적인, 개회식, 폐회식등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멀리서 거리를 두고 찍은, 모두 모이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여기를 보세요, 플래카드 잘 붙잡아 주세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행사장의 앞, 뒤에서 전체적인 인원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촬영’, ‘취재’ 이런 네임택을 착용하고 다니면서(아! 저 사람이 오늘 촬영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게합니다) 행사 시작전 부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하면 쉽게 촬영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행사를 압축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도자료로 과거에는 많이 쓰였지만,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에서 반드시 기록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진입니다.

2.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기록

(Middle Shot, Bust Sho, Waist Shot, KneeShot, 2~3Shot, GroupShot)

누가, 어떻게, 무엇을,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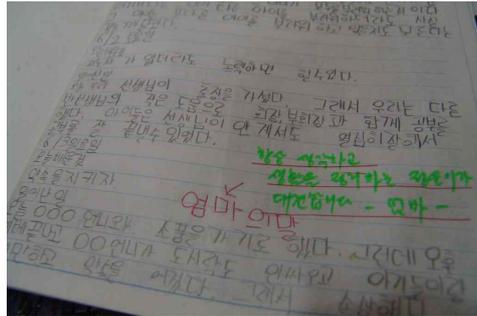
아이들이 무언가를 적고 있네 / 아! 방학 시간표를 만들고 있는 거구나
 설명하는 기록은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발견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여러 장의 사진 단어가 모이면 훌륭한 설명 자료가 됩니다. 블로그에 후기 같은 것을 올릴 때 이런 사진이 많으면 사진의 나열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3. 그래서 그렇구나 공감하게 하는 기록

(Close Up, Tite Bust, Big Close Up, Feel Cut, Heart View,)

왜, 어떻게, 이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까이 다가가서 발견하는 노트필기 내용, 슬픔 기쁨 분노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소품,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밑줄 친 이유는? 무엇을 마음에 담아 가나요?



카메라 앞에서 네, 아니요, 그냥요.. 짧게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자기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면 술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트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숨겨진 질문들을 찾아내면 함께 해온 선생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섬세한 힌트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 글을 읽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진을 나열하면 훌륭한 보도자료가 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콘텐츠가 됩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객관적인, 설명하는, 공감하는 내용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있는가? 연구하고 비슷하게 써보다 보면 훌륭한 보도자료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일 '꿈의 독창무대' 서는 홀트일산복지타운 문경화양
[동아일보 2005-11-01 04:37]

[동아일보]

“도산이에(동산 위에) 오아서서(올라서서) 파랗아늘(파란 하늘)...”

어색한 발음에 틀리기 일쑤인 음정이지만 수많은 청중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며 돼 꿈만 같다.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 고양시 홀트일산복지타운의 혼성합창단 ‘영혼의 소리’ 단원 문경화(17) 양. 정신지체 1급이면서 다운중후군을 앓고 있는 그녀가 3년 동안 노래 한 곡을 외워 15일 오후 7시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독창을 한다. 이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자리에서다. 곡목은 ‘하늘나라 동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습능력이 낮은 문 양이 노래 한 곡을 외운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두툼한 책 한 권을 외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

- 공감하는 글귀의 제목
호기심 유발
- 공감하는 상황의 묘사
-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
- 객관적인 상황
-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
- 설명하는 인터뷰 내용

사회복지 영상기록의 기초

사회복지현장에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질 좋은 콘텐츠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슬라이드에 음악과 자막을 넣은 영상물을 가지고는 시청자의 수준을 맞추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사회복지현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손안의 방송장비’인 스마트폰 보급이 일상화 된 만큼, 잘만 활용하면 방송국이 부러워 하는 (에피소드가 가득한 사회복지기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진정성이 가득한 우리 기관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보는 이로 하여금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기록하자
2. 이왕이면 현장의 소리와 분위기가 전달되는 비디오도 기록하자
(사진과 비디오를 같이)
3. 전체적인, 가까이에서 본, 감정이 느껴지는 기록을 하자
4. 기록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보며 즐기는 시간을 갖자

사진기록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기록과 보고에 익숙한 도구라면, 비디오기록은 서비스를 통해 생겨난 문화적인 현상이나 이용자의 의견을 담을 수 있어 양방향적인 소통에 가까운 도구입니다.

비디오의 기록은 촬영하는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출연하는 사람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어 사람과 사회의 성장, 변화 같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유용합니다.

촬영자의 시점에 영향을 받고, 편집과 상영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사진기록과 함께 비디오기록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촬영기기는 사진과 동영상 녹화가 가능하니 사진을 찍고, 같은 장면의 비디오를 같이 기록해서 생동감 있는 기록을 하길 바랍니다.

영상 단어 촬영원리

- 옆으로 눕혀서
- 3초~5초의 길이로
- 흔들리지 않고
- 목적이 있는 움직임
 - 둘러보는 (패닝)
 - 위아래로 표현하는 (틸트)



영상단어의 기록(숏Shot, 컷Cut, 클립Clip)

녹화버튼을 눌러 기록(REC/●)하기 시작해서 다시 대기(STBY)상태/ 혹은 정지■가 될 때까지의 녹화를 영화에선 '숏', 방송에선 '컷', 동영상 편집에선 '클립' 이라 합니다. 비디오를 기록할 때 녹화(REC/●) 상태로 쉼 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초~5초 정도의 여러 컷들로 장면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장면을 녹화한다면,

- # 공간에서 책을 읽는 모습(3초),
- # 책의 모양과 제목(3초),
- # 책장을 넘기는 손(3초),
- # 글을 읽는 얼굴 표정(3초),
- # 어깨너머로 책 읽는 모습(3초),
- # 공간에서 책 읽는 사람의 모습(3초) 같이 여러 장의 사진을 찍듯이 비디오를 기록합니다.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낮은 눈높이로 본 모습



어깨 너머에서 본 모습



눈 앞 바로 아래에서 본 모습

이렇게 기록할 땐 끊어서 녹화를 하지만, 재생하면 화면이 연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방송되는 영상을 자세히 보면, 끊겨 있는 화면들이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안대선에 맞춰진 눈

컷의 개수, 길이, 눈높이

1. 보는 이로 하여금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기록합니다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은 ‘가까이’에서 기록하고, 시청자가 ‘궁금한 것’에 대답을 하듯이 기록하면 됩니다. 내가 촬영하고 있는 이 화면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시청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면 됩니다.

‘쇠뇌골소리모아 합창단’의 연습장면을 기록한다면, 합창단의 전체적인 연습모습을 담습니다.

	# 장면	video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연습을 한다
		audio	노래 연습하는 소리
	# 영상단어	사람들, 모여, 합창	
	☐ 시청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네 무슨 노래? 어떤 사람들이지?	

시청자의 입장에서 ‘무슨 노래를, 왜, 이 사람들은 누구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보게 되니 그 다음 장면은 그 해답을 영상으로 표현합니다.

	# 장면	video	'세상 높은 곳에서' 악보를 든 손
		audio	'세상 높은 곳에서' 노래 소리
	# 영상단어	악보, 노래하는 사람,	
	시청자	아 이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	

가까이에서 '세상 높은 곳에서' 라는 악보의 글씨가 보일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면, 시청자는 또 다른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에 맞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듯 영상을 기록하면 됩니다.

	# 장면	video	지휘자 어깨 넘어 합창하는 사람들
		audio	노래 소리, 노래 지도하는 소리
	# 영상단어	연습하는 사람들, 지휘하는 손,	
	시청자	평범한 동네 아줌마들 같은데, 왜 이렇게 모여서 노래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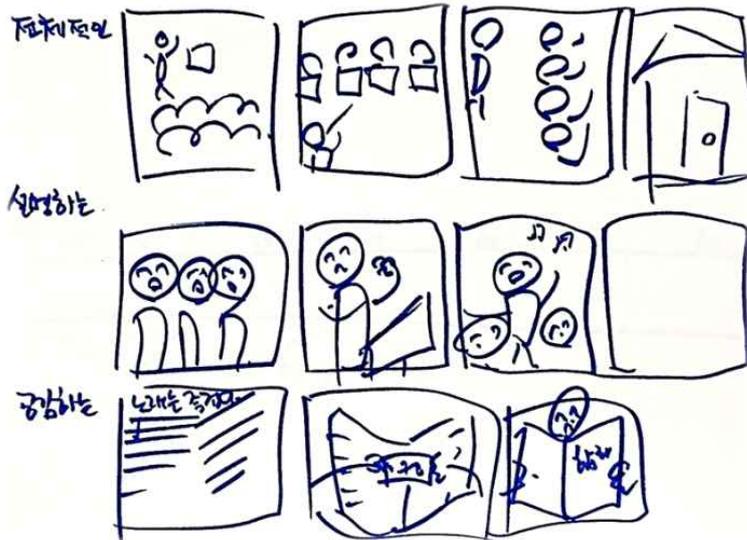
지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장면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 본 장면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촬영을 할 만한 장소에 고정되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청자가 궁금해 할 위치를 찾아 이동하며 장면을 기록합니다.

	# 장면	video	지휘자 노래 지도
		audio	지휘자 노래 지도 하는 소리, 노래
	# 영상단어	지휘자, 지휘하는 손	
	시청자	지휘하는 사람이 노래 지도를 잘 하네..	

이렇게 현장에 와 보는 것 같은 기록을 보여주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으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합창연습을 하고 공연도 하는 구나' 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간단한 영상컨텐츠가 됩니다.

컷 단위로 기록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아이들이 모여서 합창 연습을 한다



아이들이 모여서 독서 수업을 한다

Full
전체적인
멀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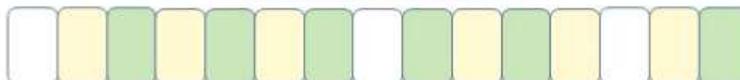
Milde shot
설명하는
가까운 거리



Close Up shot
공감하는
아주 가까운



배열



효과음, 말



장면 - 장애인보호작업장

Full
전체적인
멀리서



Milde shot
설명하는
가까운 거리



Close Up shot
공감하는
아주 가까운



장면 - 초등학교 장애통합-장애인 친구랑 잘 지내요

Full
전체적인
멀리서



Milde shot
설명하는
가까운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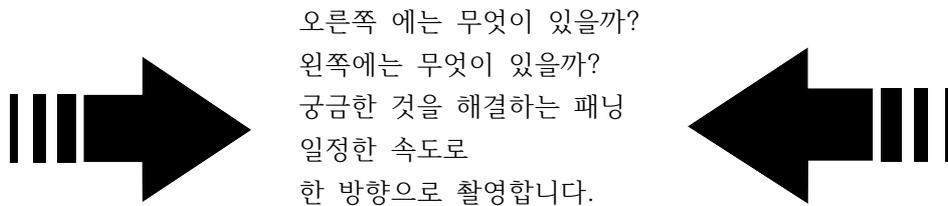
Close Up shot
공감하는
아주 가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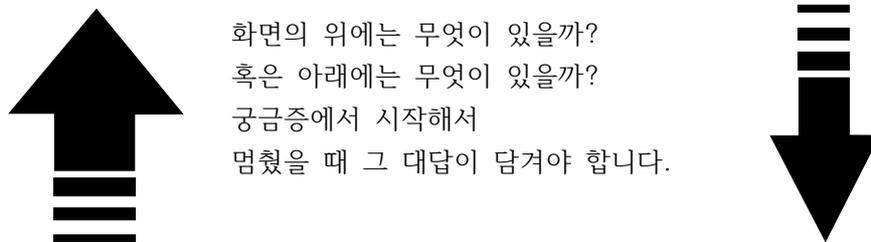
(카메라의 움직임, 흔들림을 시청자가 알아차리면 영상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청자가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진을 찍듯이 고정된 화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정석이나, 내용에 따라 움직임을 통해 의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공간 전체를 보여주기(패닝)

- 카메라를 옆으로 돌아보는 (패닝)은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마음속에 정해 놓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기록합니다.



2) 화면보다 키가 큰, 높고 낮은 것의 표현 (틸업, 틸다운)



3) 궁금증을 해결하는, 연역법 혹은 귀납법의 표현

-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의 일부였다. (줌 아웃)
 - 전체 모습 중에서 눈여겨 볼 것은 바로 이것이다.(줌인) / 이것을 집중해 보세요.
 - 카메라가 가까이 혹은 멀리 움직이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틸다운), 아래에서 위(틸업)를 비추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4) 몸인, 몸 아웃

- 아무리 좋은 줌 기능을 가진 카메라여도 줌을 대각선으로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카메라를 든 몸이 가까이 다가 가거나 멀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영상단어와 문장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카메라를 소유했다고 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익숙한 필기구처럼 연습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화면과 녹음된 목소리가 어색할 지라도, 기록된 내용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수록 영상으로 된 단어와 문장은 점점 세련되어 질 것입니다.

2. 이왕이면 현장의 소리와 분위기가 전달되는 비디오도 기록하자 (사진과 비디오를 같이)

영상의 구성요소를 보면

1. 영상
2. 현장음
3. 말 (나레이션)
4. 효과음(음향효과)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합창단을 소개하는데, 노래 소리가 없이 사진으로만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회복지현장의 ‘현장음’을 잘 기록해서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해교실의 어르신들 ‘글 읽는 소리, 편지글 낭독하는 소리’

노래교실의 신이 나서 부르는 ‘노래소리’,

자기 스타일로 부르는 ‘노래 곡조 소리’

나들이 가는 것이 신나서 내는 ‘흥얼 거리는 소리’

컴퓨터 배우고, 피아노 배우는 ‘키보드, 피아노 악기 소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각종 목소리’ 들을 기록하는 도구가 비디오녹화와 음성녹음 기능입니다. 사진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있는 현장’일 경우에는 비디오와 녹음 기능을 활용하길 바랍니다.

3. 전체적인, 가까이에서 본, 감정이 느껴지는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카메라 렌즈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눈에 보이는 것을 렌즈로는 여러 장면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p>그림</p>	<p>전체적인 장면은 약간 먼 거리에서 사람이나, 공간의 형태가 다 나오게, 여러 사람이 있는 기록을 하고,</p>
 <p>중간 앵글</p>	<p>설명하는 장면은 약 1미터 정도 이내의 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p>
 <p>클로즈업</p>	<p>공감하는 장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30센치 이내)에서 보는 것처럼 부분적인 것들을 드러나는 기록을 합니다.</p>

같은 내용을 기록하더라도 거리에 따른, 화면 속 인물의 크기에 따른 감정이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가까이 멀리 다르게 바라보며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다양한 사이즈는 나중에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줄 때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4. 기록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보며 즐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나?

카메라 앞에서 모델이 되어 본 사람이라면 촬영 직후 바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다시 만지고,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촬영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출연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피드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초상권에 대한 동의라든가, 더 나은 촬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아쉽게도 기관에서는 궁금한 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오랜 시간 뒤에 보여주거나, 서류상 보고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내가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하면서도 물어보진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기만 한 어르신들은 나중에 ‘사진을 찍으면 뭘해? 돌려주지도 않는 걸~’ 하면서 촬영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영상 촬영의 경우 큰 맘을 먹고 훌륭한 작품으로 편집해서 보여주려고 하기 보다, 촬영된 직후 바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작품이 되게 촬영하였는가 보다,

‘내가 잘 나왔는지?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지? 흥하게 나왔으면 다시 촬영하자’ 는 이야기를 하고자 같이 보고 싶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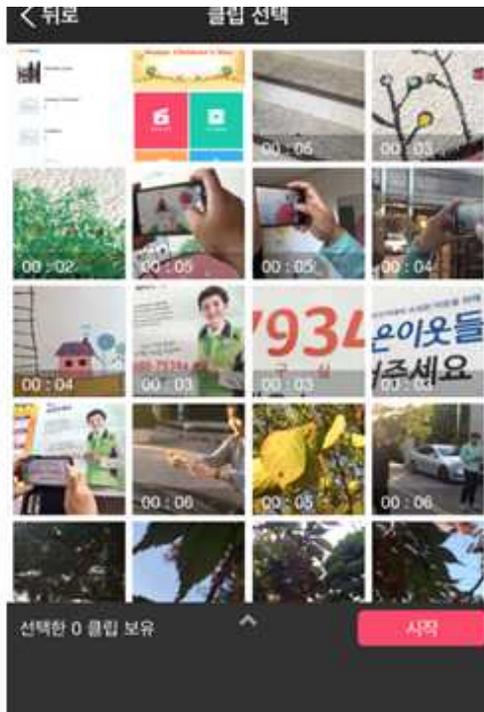
video show 같은 간단한 비디오 편집 어플로 동영상을 이어 붙이고 여럿이 모여 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흔들리는 화면이지만, 사람들이 비디오로 인해 즐거워 하는 모습, 더 개선되어지는 표정이나, 행동, 말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비의 TV, 프로그램실의 빔프로젝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방금 촬영한 것, 최근에 있었던 보고 싶고, 궁금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후원의 밤 같은 날에 일 년치 영상을 몰아서 보여주는 것 보다,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보여 지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엔 더 잘 해겠다는 동기를 갖게끔 하는 상영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편집 기능이 무척 쉬워졌습니다.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는 것 보다 쉽게 즉석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3초 분량으로 기록된 다양한 영상단어(컷)들을 다양하게 기록한 뒤, VidoeShow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클릭 하는 것으로도 영상이 완성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자막, 음악, 나레이션 등의 효과를 넣는 것이 무척 쉽게 됩니다.



- 3초정도씩 끊어 찍은
- 영상클립들을
- 선택하는 순서대로
- 영상이 만들어지고
- 길이, 자막, 음악등
- 다양한 효과가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3초짜리 영상단어들을 잘 기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영상단어로 기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동을 기록하는 원리

- 공감을 기록하고, 같이 보고, 공유하세요

카메라를 들고 사회복지현장을 가보면 잠깐만 있어도 이야기 소재가 되는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방송작가가 와서 본다면 다양한 방송 콘텐츠로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야기 소재가 가득한 기관에서는 카메라는 있어도 무엇을 찍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용자의 의견이나 소감을 중요시 하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시대에 맞게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록보다는 기관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현상’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면 자연스러운 ‘우리 기관 사람들’ 이야기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를 들고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청하려면, 먼저 세심한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의 말문을 트이게 하는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거지?’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만의 삶의 방식이나, 고집스런 자기만의 주장이나, 자기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말을 걸면 기꺼이 대답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 누구나 보는 사진 (SEE)
- 지켜봐야 발견하는 사진(LOOK)
- 아는 만큼 보이는 의미를 알아차리는 사진(FIND)
- ‘그랬구나’ 공감하는 사진 (FEEL)

이 중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FIND), 그랬구나 공감하는 (FEEL) 힌트들이 바로 말을 걸면 대답하기 버튼입니다.



See
(아이가 뭔가를 보네)



look
(나무에 뭐가 있니?)



Find
(어머 새끼 사마귀 안녕?)

그 버튼이 어디에 있나 잘 찾아서 여러분의 기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청자가 공감하게 하는 시점을 다양하게 기록합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처음엔 객관적인 시점을 가지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을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뒤따라 가거나, 그 곳에 같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시점을 3인칭 시점이라 하는데, 여기에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나레이션이라도 들리게 되면 전지적인 작가시점으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어디 한 번 보자'는 식의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상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보면서 진정한 우리편이 되어 후원도 하고, 동참도 하게 되길 바라는 만큼 팔짱을 끼고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라는 시청자의 행동을 바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시점

의 변화입니다.

그냥 여러 무리의 사람들 속에 섞여서 바라보는 시청자를 2인칭 시점이 되게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이 와 닿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카메라와 촬영당하는 사람의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어깨 위로 살짝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에서는 카메라를 든 사람과 등장하는 사람의 대화이지만, 시청자는 어느새 카메라를 든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3인칭 관찰자 느낌 (시청자는 같은 공간에 서 있는 것 같음)



시청자는 간병사의 입장인 2인칭



할머니 어깨너머로 3인칭 시점에서 할머니의 1인칭 시점으로 전환 가능



할머니 입장에서 바라본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의 시점, 혹은 같이 있는 목격자로서의 1인칭 시점을 갖게 하려면 이제부터는 감정이입이라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런적 있어' 라는 동감이 되는 상황묘사나 구체적인 대사로 순식간에 '저것은 내 경험과 같아,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어, 그때 나의 느낌은 이랬는데..' ' 그 잊혀져있던 감정들을 다시 살려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경험을 화면 속에 대입을 시켜가며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그콘서트의 '생활의 발견', '남녀탐구생활' 코너에서 처럼 연애를 하다보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박장대소를 하며 웃게 되는 것처럼,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도 장애인, 노인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 내 부모님의 상황과 같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캐치해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비디오를 기록하면서 시점까지 기록을 하자는 것은 무척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단어부터 연습하고, 자꾸 반복해서 문장을 연습하는 것처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비디오 기록은 영상으로 된 언어를 익히는 마음으로 자꾸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새 영상으로 기관의 메시지를 감동을 담아 전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영상으로 사회복지현장을 이야기 하려면, 매체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가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낯선 환경, 공간 속에서 처음 대하는 사람들, 일을 마주한다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서히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시청자가 화면 속 화자와 같은 입장이 되려면, '준비'에 해당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챙기고,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상황을 이야기 하면 화면 바깥의 시청자는 어느새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운전자 옆에 앉은 것 같은 입장이 되어 갑니다.

사회복지현장의 본론을 바로 보여주기 앞서 준비하는 장면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 밖의 시청자가 어느새 화면 속 이야기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신림동의 이웃사랑 빨래비누 할머니

“할머니 빨래비누가 인기가 좋은 가봐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빨래비누’ 버튼을
누르자 이야기가 줄줄 나옵니다.

"나는 세 가지를 다 넣어서 만들어.
젓물, 옥시크린, 슈퍼타이하고,
박카스병에 들은 거 하고, 단골도 꽤 있어.."

자기가 만들어 파는 물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 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비누가 세상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씻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국 아저씨의 정말 튼튼한 손잡이

전화설치를 위해서 오신 아저씨의
가방손잡이 버튼을 누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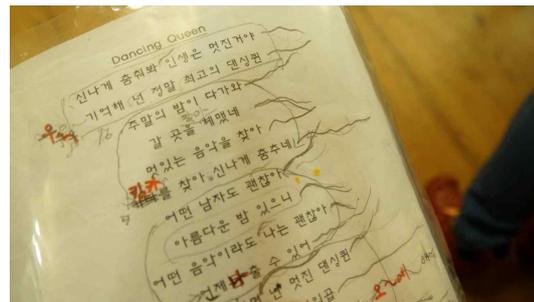
오랜 시간동안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온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일을 좋아하면
어디에서든 티가 납니다.



할머니 댄싱퀸 악보의 비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을 준비 중인 할머니의 악보에는
할머니만의 악상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 영상제작에 대한 과업 부담이 아니라, 상영과정에서의 즐거움이 기대되는 기록**

편집을 잘 해서 대단한 영상작품을 만들어서 상영하려고 하기보다,
일상을 잘 기록하고, 거칠고 흔들리더라도 작게 상영기회를 갖는 것으로
영상기록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출연자는 탤런트가 되어가고, 기록자는 부드럽게 촬영하게 되는
서서히 익숙해지는 사회복지현장을 기대해봅니다.